

 인천광역시		보도자료		경축 재외동포청 개청
		배포일자	2023년 6월 23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환경안전과	담당자	• 환경안전팀장 조숙녀 ☎440-8581 • 담당자 오현정 ☎440-8582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	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화학사고 발생 대비 주민대피교육 실시

- 23일 송도 컨벤시아서 개최 -

- 아파트관리자 및 군·구 화학사고 담당자 100여명 참석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파트 관리자 및 군·구 화학사고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대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유·누출 되는 경우, 군·구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원과 사전협의 후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(문자, 방송 등) 하게 되며 주민대피 발령 시에는 주민 행동 요령과 대피장소(필요 시) 등을 안내한다.

주민대피 행동 요령은 ▲1단계 : 인근 건물 등 실내로 대피(외부공기 차단) ▲2단계 : 텔레비전, 휴대폰 등을 통한 상황 관찰 ▲3단계 : 주민대피 명령 발생 시 대피장소로 이동 ▲4단계 : 주민 복귀 결정 후 일상으로 복귀로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.

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, 인천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향권 밖에 총 33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·운영하고 있다.

인천시는 향후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군·구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.

이용수 시 환경안전과장은 “화학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방 안전교육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(16시)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